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 인식의 양상*

- 장애인 창작 소설을 중심으로 -

차 희 정**

차 례

- | | |
|---------------------------|--------------------|
| 1. 머리말 | 2) 장애의 현재적 고통과 정체성 |
| 2. 대상으로서의 장애, 장애인, 장애인 문학 | 탐구의 열망 |
| 3. 존재의 확인과 주체의 발화 | 3) ‘장애’의 자의적 기표 구성 |
| 1) 구분됨, ‘무성(無性)적 존재’의 거부 | 4. 맺음말-장애인 소설의 의의 |

국문초록

본고는 장애인 소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장애’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소설의 장애 인식은 자신들을 타자화하여 차별하는 대다수 비장애인의 인식을 거부하거나 장애 현실을 수용하고, 자기정체성을 탐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 밖에도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로까지 자의적으로 장애의 범주를 확장하여 ‘인정’과 ‘연대’의 기

* 이 글은 2012년 한중인문학회·한국문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09-MB-2002)

** 중국해양대

표로 새롭게 장애를 구성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해바라기 사랑>, <엄마의 남자, 그리고>의 주인공은 장애를 이유로 무성적 존재로 단정된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규정한 남성의 사랑에서 승화되고 있는 모습이며 <소풍>, <낙타가족>, <신의낙엽>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고통스러운 장애의 현재적 상황을 목도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해가는 과정에 천착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신체에 내포되어 강제적으로 수용을 요구하는 폭력의 현실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 <평상이 말을 하다>, <구멍가게와 겨울나무>는 연대를 통해서 장애의 현실적 한계를 무화시키는 데에까지 나아가려 했으나 또 다른 데에서 장애의 벽을 맞닥트리게 되면서 장애인의 주체적 장애 인식의 험난한 노정을 암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 작품과 더불어 장애인이 창작 주체인 장애인 소설을 감상하는 것은 의식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화적 담론의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장애, 장애인, 타자, 정체성, 주체, 인정, 연대

1. 머리말

한 장애인 소설가의 “문학은 구원이었고 신앙이었다”¹⁾는 고백은 장애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서는, 창작에 대한 그의 절규하는 소망으로 들린다.

1) 김금철, 『수기집』,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7. 김금철은 《허기와 성》, 《그대 소망하는 것이라면》, 《키작은 미국인》, 《여자가 없는 나라》 등의 소설집을 간행한 척수마비 장애인 작가이다.(장애인 문학은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1990년 12월 7일 창립되면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을 비롯하여 ‘곰두리문학상’, ‘한국장애인근로자문학상’ 등이 장애인 문학 창작 활동을 고취,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창작 활동의 의미와 그 필요를 단번에 짐작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 한다. 작가 김원일 역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간적 가치를 두는 것이 소설의 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²⁾고 말한다. 소외된 자들을 작품 속에 담아내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재 가치를 찾아주고 그들의 장애를 담론으로 인간의 근원적 존재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소설의 역할이라는 의미이다.

문학이 반영론적 차원에서 사회적 맥락 및 은폐되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관계들을 담지하고 있음에 동의한다면 장애인 창작 문학 작품이 사회의 개별적 특성과 인간 현상의 복잡다단한 모습을 그야말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모든 문학적인 자료는 사회적인 의미를 띠게 되어 순수한 사회학적 자료를 보강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신산한 삶의 구체적 표현을 통해 구현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 특성은 사회·역사학에서는 불가능한 개인의 내면까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제 문학이 사회 현상과 그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측정해 내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에 동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에 기대어 장애인의 삶과 그들의 ‘장애’ 인식의 양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장애인 문학’³⁾, 즉 장애인이 창작한 문학은 지

2) 「명사대담」, 『숫대문학』2004 여름 54호, 2004.

3) 장애인 문학은 아직 그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정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적으로는 장애인 작가의 작품과, 장애가 그 소재, 제재가 되거나 장애 인물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범주화하여 장애인 문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장애인이 창작한 문학 전반을 ‘장애인 문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 창작 문학에 대한 이해와 그 문학의 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장애인 이해가 부족한 현재적 상황에서 ‘장애인문학’으로 규정했을 때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특성만을 협소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염려한 까닭이다. 창작 주체의 신체적 특징만을 조건으로 할 때에 장애인 문학의 장르가 형성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문학을 특수한 영역으로 국한했을 때) 문학의 보편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까지 ‘구분됨’으로 일관해 온 차별적 장애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장애인 문학의 범주 안에서 장애인 소설⁴⁾을 대상으로 소설에 나타난 장애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 소설을 장애인 문학의 범주 안에서 대상화 하는 것은 장애인 소설에 담긴 이념이나 세계관 차원의 변별성을 찾아 ‘장애인문학’으로 그 범주를 확정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장애인 작가⁵⁾의 소설⁶⁾에 나타난 장애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우선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작품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 창작 소설에 나타난 장애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장애,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의 일방적이며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수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장애,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하나는 장애인 소설이 문학으로서의 보편성 획득과 비로소 문학의 한 범주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그 첫걸음을 놓으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화, 세분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가 장애인 소설을 ‘우리’의 표현행위의 결과물에 포함시키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 소설이 다문화 사회 소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타진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설을 포함한 장애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창작을 재화의

4) 본고에서는 ‘장애인 소설’을 ‘장애인 창작 소설’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후 논지 전개 상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5) 『숫대문학』은 3회 추천을 통해서 정식 작가 등단의 과정을 완성한다. 등단 이후 정식 작가로 사)장애인문화진흥회(2009년 설립)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지원도 받는다.

6) 본고는 국내 유일 장애인종합문예지 『숫대문학』에 실린 소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숫대문학』은 1991년 창간호 발간 이래 현재까지 연간 4회 문예지를 발간한다. 1991년 봄 창간호부터 2011년 겨울호까지 게재된 소설은 모두 125여 편이며 그중 장애인이 주인공이거나 주요 등장인물인 소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